

지 상 중 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6>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일시 : 불기 2549년 6월 5일
- 강사 : 정현숙 교수(상명대 가정복지학과)
- 주제 :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
-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부부는 희생 아닌 협력의 수평 관계

사회는 변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도 변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든 가장 기초적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가부장적인 틀로써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일까? 다양한 연인들이 결혼 후에는 소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아져만 가는 이혼율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로는 무엇이 있을까?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의 여섯 번째 강사로 나선 정현숙 교수(상명대학교 가정복지학과·e-가족연구소장)를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열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부부관계' 놓치기 쉬운 중요성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가치,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부부간의 확고한 믿음과 유대는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자식 역시 부부가 만나야 비로소 생긴다는 점에서, '부부'라는 수평적 관계가 새로운 가족의 핵심 키워드라고 정 교수는 말한다.

"가정복지학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전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배워야 하나?'고 묻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배워본 적조차 없는 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죠."

정 교수는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자녀를 적게 양육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웃음이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배우자 외의 관계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정 교수는 "결혼이란 마치 도자기와 같다"고 말한다. 한번 깨진 도자기에는 물을 담지 못하듯이, 부부관계 역시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부부관계 역시 조심스럽게 노력을 기울이며 닦고 아껴야 하는 것이 맞다. 수백 년 된 도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결혼생활 역시 헛수가 지남수록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

부부들을 대상으로 돈·자녀·성·가사·일·친척관계·여가시간 등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오래 사는 부부들이 느끼는 부부간의

불만 요인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들을 차이 내게 하는 것일까. 정 교수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자기자신을 알라

각 개인이 살면서 갖는 관계를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 일 관계, 친구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들로, 그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는 있지만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맺을 때에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 속에 사회적 만남이나 개인적인 관계들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한다.

정 교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자기회생적인 태도가 가족과 나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서 정 교수는 나의 취미,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라고 조언했다. 내 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관계를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변하기 때문이다.

2.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멀고도 가까운 부부사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일단,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부터



그림 : 박구원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듣고 날 때 인기척이라도 내는 것이다. 고3인 아이를 둔 부모들은 "나오지 말고 안에서 공부해라"고 말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인사를 하느라고 공부마저 망쳐질까. 오히려 가족 간의 예절을 가르치고, 모든 관계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는 사실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3. 뭐든 함께 공유하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집이 풍족해도, 부부가 서로 활달하고 질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정의 근본은 바로 서지 않는다. 상대

하는 것. 따져보면 부부이면서도 일어나 자녀돌보기 등에 쫓겨,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주말에 낚시를 혼자 가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취미나 종교활동을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라

살면서 감사한 일은 무척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 강의를 나가 '아내나 남편에게 고마운 때를 떠올려 보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부부들은 '아내가 남편이 옳든 잘못 때'라고 말하거나 그나마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뭐가 고맙지'라고 생각해보려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폭은 훨씬 줄어들다. 고마움도 표현해야 한다. 굳이 고맙다고 말할만한 행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살아있어서 고맙고,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자. 통째로 월급을 가져와서 맡겨준 남편에게, 돈 봉투를 열고 액수를 확인하기 전에 '돈 벌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뭐 먹고 싶어?' 내가 2만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 쓸까! 라고 말하면 금상첨화이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부부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주문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대신 행복한 부모가 되도록 관계의 초점을 부부에게 맞추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낮간지럽고 실천하기 어려웠던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 교수는 "이는 것은 남의 일이고 깨닫는 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승상님이 말씀하셨듯, 가족 사이에서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질의 응답

- 전통적으로 미역으로 여겨지던 가부장적 가족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전통적이고 중요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새롭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부부관계에 종교생활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부가 같은 종교를 믿으며 종교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즘 사찰에 가보면 청년부, 어린이부, 일반부 등으로 법회를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서 안타깝다. 부부관계 학자로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회가 보다 많이 개설되기를 바란다.

■정현숙 교수는

1981년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아동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아동학과 가정학석사 과정을 밟았다.

9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가족관계 및 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 가족상담 교육연구소 연구부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로 있으며, e-가족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이혼과 가족문제> <가족학이론> <결혼학> <결혼완전정복> 등이 있다.



다음 주제: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강사 최혜경 · 6월 19일)

##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원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료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적인 아난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실험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접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 심봤다!

## 제 2 의 산삼

(주)현풍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